

# 305 나같은 죄인 살리신

(통일 405)

보통으로

1.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2. 큰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3. 이제껏 내가 산것도 주님의 은혜라  
 4.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처음 믿은 그 시 간귀하고 귀하다  
 또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해처럼 밝게 살면 서주찬양 하리라 아멘

## 시니어 순모임(2월)

인도: 순장  
대표기도: 맡은이

찬양 ————— 찬송가 305장(나같은 죄인 살리신) ————— 다같이

대표기도 ————— 맡은이

감사제목 나누기 ————— 다같이  
(한 달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기도제목 나누기 ————— 다같이  
(본인의 기도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어 봅니다)

말씀 나누기 ————— 맡은이

합심기도 ————— 다같이

광고 ————— 맡은이

주기도문 ————— 다같이

알려드립니다.

- 함께해요. B20 P20 (20분 성경일기, 20분 기도하기)
- 2월 23일(주일), 시니어 특강 - ‘시니어를 위한 창조 이야기’/이억섭 목사
- 최정호 목사 전화번호입니다. (571-621-0443)

## 진노하시는 하나님 / 로마서 1:18-32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다르게 보이는 듯한 주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두 부류는 경건하지 않은 삶과 불의한 삶입니다. 불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라면 불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 ▶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과 불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생각,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 ▶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치한다는 것입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의 문제는 주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여 그것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자녀, 성취하고 싶은 꿈,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사로잡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이사야 41:24절, ‘보라 너희는 아무 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만 고귀한 인간이 피조물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창조주 앞에 경배할 때 그때 진정 기쁨, 평강 있습니다. 29-31절까지 21가지 죄악들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 ▶ 하나님의 죄악을 행하는 이들을 향한 심판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주시는 것입니다.(24~28절) 우상 숭배의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마지막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만 내버려 둔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 ▶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지은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께서 거두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시51:10-11)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두지 말아 주십시오.

▣ 오늘 우리를 사로잡는 우상은 어떤 있습니까?

▣ 변해가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살아 가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 생명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4)